

# 세계 호남향우 300여명 고향발전 다짐

### 전주서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 20국 57개 지역 지도자 대거 참여 5·18 묘지 참배·자은도 등 방문

지난 4일 '세계호남인의 날'을 맞아 20개국 57개 지역 호남향우회 지도자 300여 명이 5일까지 사흘간 고향을 둘러보고 지역 발전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김달범·일본 도쿄)가 주최한 이번 방문 행사에는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호남향우회 지도자가 대거 참여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

들은 세계호남향우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 협력을 다짐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4일 진안 마이산, 임실 치즈테마파크 등 전북 일원을 시찰한 후 오후 6시부터 전주 라한호텔에서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전북도립국악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3개 시도 중·고생 9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향우 유공자 6명에게 공로패를 시상했다. 김달범 총연합회장은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면서도 고향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호남정신"이라며 "향우회 회원 모두가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고향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고향에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김달범 총연

합회장과 향우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계 각지에 계신 향우들께서 고향 이야기에 어깨를 짚어주실수록 전남도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 방문 마지막 날인 5일엔 전남을 방문해 신안 자은도 백길해수욕장과 1004 뮤지엄파크, 압해도 분재공원 등 전남 섬 관광지 현장시찰 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방문 일정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방문 첫 날인 3일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고 전주에서 향우회 자체 행사를 치렀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200만 해외호남향우를 대표하는 단체다. 2013년 창립 후 매년 '세계호남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강진서 이틀간 수산업경영인 전남도대회

### 3000여명 새 성장동력 창출 다짐

제10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대회가 5일과 6일 이틀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렸다. <사진> '깨끗한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수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바다가 인접한 16개 시·군에서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산업경영인 대회는 전남 수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수산업경영인 상호 친목 도모와 수산업 관련 최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리는 전남 수산 관련 최대 행사다. 올해는 지난 2020년 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산된 지 4년 만에 열렸다. 4일 개회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상근 해양

수산부 차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강진원 강진군수, 수산업경영인 회원 가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전국 1위이고,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바닷물이 구슬땀을 흘리는 수산업경영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산업경영인 육성 공로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5일에는 상설전시장에서 우수 수산기자재 전시, 강진군 관광사진전 등을 진행하고, 경영인연합회원이 참가하는 체육행사와 시·군 노래자랑, 미니 음악회 등 전남 어업인의 화합 잔치가 펼쳐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산간오지서 영화 상영하고 마을영화도 찍는다

### 전남도 두달간 '찾아가는 영화관' 고흥·장성 등 5개 시·군 6개 마을 문화 소외 지역 문화향유 기회

전남도가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직접 찾아가 영화를 상영해주는 '2022 찾아가는 영화관'을 11월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 <사진> 찾아가는 영화관은 영화관이 없는 산간 오지, 섬 등 농어촌에 찾아가 영화 상영 및 문화나눔 행사를 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남영상위원회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장성군, 장흥군 5개 시·군의 6개 마을을 선정, 사업을 진행한다. 2021년에는 14개 시·군에서 17회 영화를 상영해 621명이 관람했다. 올해는 1차 방문과 2차 방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1차 방문에는 가족사진·장수사진·증명사진 촬영 외에 마을영화 제작이라는 특색있는 경험을 추가했다. 2차 방문에는 인화된 사진을 액자에 담아 본인에게 전달하고 마을전시회 개최 및 마을영화 시사회도 진행한다.

또 마을 주민이 보고 싶어 하는 최신 영화 및 추억의 영화까지 상영해 문화 소외 지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새로 추가된 마을영화 제작은, 마을 주민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마을 소개와 함께 그곳에 사는 주민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고 마을 시사회도 여는 방식이어서 주민 참여와 관심이 큰 이벤트다. 박정숙 (사)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전 인터뷰를 위해 광양 도이동 마을을 찾았을 때 이

마을이 10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즐거운 추억을 함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 인터뷰 등 행사에 참가한 박현숙 전남도 의원은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을 마련한 전남도에 고맙고, 더 자주 이런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 아이디어 공모

### 전남도 27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2년 정책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선 민선8기 도정 비전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와 도정 방침인 ▲도약하는 지역경제 ▲문화융성 관광수도 ▲생동하는 농산어촌 ▲감동주는 맞춤형복지 ▲소통하는 혁신도정을 실현할 구체적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30일간이다.

전남도는 12월 중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을 실무 부서 검토를 거쳐 민선 8기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금상 1명 300만원, 은상 1명 200만원, 동상 2명 각 100만원, 장려상 3명 각 50만원 등이다. 참여를 바라는 국민은 국민 참여 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우편(전남도청 정책기획관실 제안담당자 앞)을 통해 제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공식 누리집(www.jeonnam.go.kr)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공식 누리소통망(SNS)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관광·이차전지 소재사업 투자유치

### 씨아이에스케이미칼·누마루

### 2개 기업과 1900억 규모 협약

전남도가 지난 4일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씨아이에스케이미칼과 풀빌라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누마루 등 2개 기업과 19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

와 이성오 씨아이에스케이미칼 대표, 김기원 누마루 대표, 정인화 광양시장, 김산 무안군수,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1개 기업씩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씨아이에스케이미칼은 광양 세풍산단 한만 배후부지에 400억원을 투자해 2026년부터 연간 1만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한다. 생산공장이 건립되면 6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씨아이에스케이미칼은 일본 대표 소재기업에 반도체 장비 소재용 고순도 나노 알루미늄을 역수출하는 소재 전문기업이다. 이차전지 소재의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고순도화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소재생산 능력 강화 및 원료의 안정적 조달로 전남의 소재산업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전문기업 누마루는 무안 조금나루 일원에 15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풀빌라(403실) 등 휴양시설을 건립한다. 지역 청년 일자리 100개 이상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28일까지 신청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돕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4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은 관광 숙박업과 펜션업,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사업의 시설 확충 및 운영에 저금리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하반기 융자규모 70억원을 배정했으며, 올해 융자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대출금리는 0.5%(3개월 변동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융자한도는 1억

원에서 30억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까지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시군의 관광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금리 0.5%를 유지하고 선정 규모도 실행률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마지막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인 만큼 도내 관광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